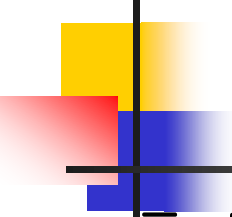


당연한 것을 의심하는 것의 치명적인 매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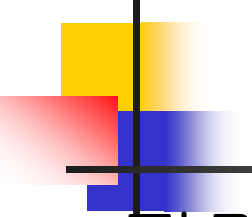
- Taken-for-granted social conventions might be amusing, if stated explicitly.

- 당연한 사회적 관습은 그것을 명백히 입 밖으로 내뱉으면 우스꽝스러워진다.

후설부터 한 수 배우기

- 
- 후설은 앎에의 태도를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자연적 태도고 다른 하나는 현상학적 태도다.
 - 대부분의 인간들은 일상에서 전자를 통해 앎을 받아들인다.
 - 그러나 후설에 따르면 그런 앎은 거짓이거나 환상, 또는 기껏해야 믿음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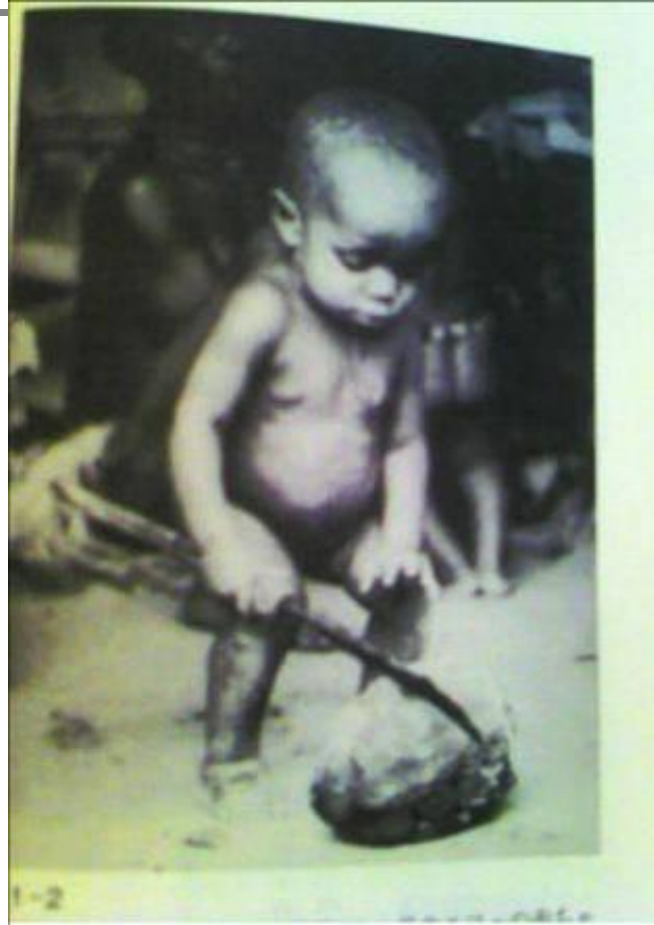
후설부터 한 수 배우기

- 
- 진리니 본질이니 하는 것은 오직 후자의 태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 전자에서 후자로 넘어가려면 마치 신앙을 바꾸는 것과 같은 단호한 태도의 전향이 필요하다.
 - 그 전향의 한 절차가 판단 중지 또는 괄호치기이다.

레비나스로부터 한 수 배우기

- 
- 우리가 ‘자연적 상태’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상태의 가치판단에 속수무책으로 묶여 있거나 그 판단에 입각해서 살고 있다.」
 - 레비나스의 비유를 사용해서 말해보자면 확실히 우리는 뭔가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거기에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시선은 ‘그 대상에 의해서 가로막혀’(자신의 틀에 의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눈은 뇌의 일부이면서 전통의 일부이기도 하다’



친족이 주의깊게 지켜보는 가운데 콩고의 생후 11개월된
아기는 칼과 같은것으로 과일을 능숙하게 자르고 있다
(Rogoff, 2003)

레비나스로부터 한 수 배우기

- 
- 우리의 눈은 시야 가득 임박해 오는 대상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고, 그것 이외의 것-다름 아닌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대상을 그렇게 ‘보이게 하고 있는’지평-은 우리의 시야로부터는 보이지 않게 된다.
 - 즉 우리들은 어떤 특정한 틀에 근거해서 인간의 마음을 보고 심리를 보고 교육을 보고 세상을 보고 있는지 그것 자체는 보이지 않는 것이다.

- 내가 어떤 대상을 주시하고 있을 때 그 대상을 ‘그림(圖)’으로 나의 눈에 전경화(foreground)시켜 주는 ‘지(地)’의 부분-비주관적 지평(사회문화역사적 지평)은-현재의 나의 시야에는 들어오지 않는다.
- 이것이 우리 일상인들이 자연적 상태 혹은 자연적 태도에 있는 것의 의미이다.
- 비고츠키는 다름 아닌 그 ‘비주관적 지평’에서 발생하는 ‘마음’ 혹은 ‘정신’에 관심이 있었다.
- Mind in Society/ Socio-cultural approach to mind

발달 혹은 성장은 무조건 선(善) ?

- GDP(국내총생산)라는 말이 있습니다.
- 그 말은 다름 아닌 ‘한나라에서 일어나는 생산활동의 모든 것을 합계한 것’입니다.
- 그런데 어머니가 가족의 식사를 만들거나, 아버지가 방을 청소하는 것은 GDP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반면에 돈을 주고 고용한 요리사가 가족의 식사를 만들거나 가정부가 방을 청소하면 그것은 GDP로 계산됩니다.

발달 혹은 성장은 무조건 선(善) ?

- 게다가 그 GDP가 커지는 것이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라고 불립니다.

-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의 생활이 요리는 요리사, 청소는 가정부, 아이 돌보기는 베이비시터, 고민 상담은 카운슬러에게 맡기는 식으로 따로따로 분해되어 진행된다면 그 나라는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발달 혹은 성장은 무조건 선(善) ?

■ 즉 경제학은 사람의 삶이 따로따로 분해되어
그 결과 예컨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전
문가에게 맡기게 되면 그것을 성장이라고 생각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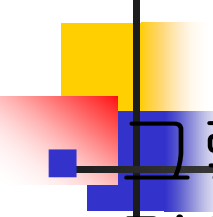
- 공장에서 타이어를 만든다고 합시다. 만들어진 타이어는 'GDP에 있어서 플러스'로 계산되지만 타이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온 화학 물질이 물을 오염시키는 것은 'GDP에 있어 마이너스'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발달 혹은 성장은 무조건 선(善) ?

■ 다시 말해 경제학에서는 타이어가 아무리 물과 공기를 오염시켜도 그것을 만들면 '성장'입니다.

- 또한 사람이 스스로 식사를 만들지 않게 되고, 자신의 방을 청소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아이 돌보기를 하지 않게 되고, 자신의 고민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의논하지 않게 되면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발달 혹은 성장은 무조건 선(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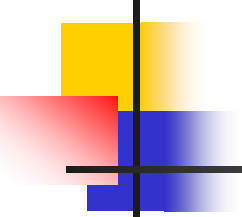


그렇게 특정한 틀을 만들고 그 틀 안에 수렴되는 것만을 '성장'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경제학(심리학)
이라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히 사상적이고 정치적인 학문입니다.

■ 그럼에도 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은 단지 중립적으로 사실을 설명할 뿐”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지요

■ 『기업적인 사회, 테라피적인 사회』 오자와 켄지 저/박 동섭 역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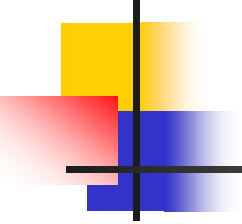
레비나스로부터 한 수 배우기

- 
- 무반성적인 지각의 고유한 이러한 불능의 양태를
 - 레비나스는 ‘무대’와 ‘연출’이라는 탁월한 비유로 그려내고 있다.

무대와 연출의 메타포

“나는 자주 이런 식으로 도식화를 합니다.

- 대상(주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연출(사회문화적 지평)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 즉 대상으로부터 그 발현이 암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모든 현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무대와 연출의 메타포

- 비고츠키에 있어 대상성을 명시한다는 것은 연출가의 일과 같은 것입니다.
- 연출가는 각본을 구체적인 사건으로 옮깁니다.
- 어떤 사건이 최종적으로 무대 위에서 출현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치를 무대에 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대와 연출의 메타포

■ 소박실재론자는 ‘신나게 박수 치며 무대를 보고 있는 관객’을 닮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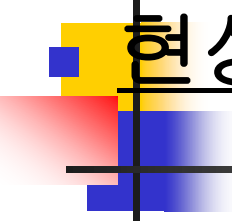
- 그 의식은 무대 위에 전개되고 있는 드라마에 몰입해 있어 어떠한 연출적 기법의 효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 아니 의식은커녕 관객은 자발적으로 ‘몰입하는 것’을 스스로 바라기 까지 한다.
- 닥터진과 사키 가족들과의 처음 만남 장면

무대와 연출의 메타포

회의론자는 비딱한 관객을 닮았다.

- 그는 무대 위에 있는 것이 판지로 만든 도구이고 배우들이 무대를 내려오면 단지 보통의 인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도 드라마에 몰입할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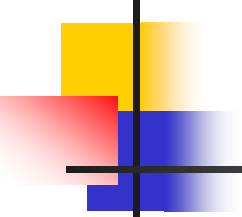
무대와 연출의 메타포



현상학자는 ‘연출가’이다.

- 우리가 비고츠키로부터 배워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다.
- 연출가는 ‘비딱한’ 시선이 아니라 배우의 연기와 조명과 음향과 무대장치를 체크하고 있다.
- 그것이 ‘만들어 진(Designed)’ 것이고 가상(假象)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숙지하고 있다.

무대와 연출의 메타포

- 
- 그러나 무대(사회)를 분석적으로 보는 것에 너무 몰입해 버리면
 - 관객(자신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정말로 보고 있는 것’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 왜냐하면 무대 위에는 비판적인 시선이 간과하고, 동시에 마음을 빼앗긴 관객이 환상하는 극적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